

조공법인 설립 완료, 매출액 1조원 목표 도약

군산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농식품부 설립 인가... 전북 14개 모든 시·군 완료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군산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군산시조공법인)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업무개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북 지역의 농산물 통합마케팅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전북은 2024년까지 군산을 제외한 13개 시·군에 조공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며, 연평균 매출액 430억 원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체계적인 노력의 결실로 2024년 말에는 통합마케팅 매출액 6,423억 원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통합마케팅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참여조직 취급액 대비 통합마케팅 참여비율에서 전북은 87.9%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 36.3% 대비 2배 이상 높은 실적을



보였다. 이는 조공법인을 중심으로 한 일원화된 마케팅 구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러한 성공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의 농산물 통합마케팅은 2012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전북은 시군별로 조공법인을 중심으로 한 통합마케

팅 조직을 구축하고, 농산물 유통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며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다졌다.

2025년은 전북 농산물 통합마케팅의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전북농협은 모든 시·군에 조공법인 설립을 완료한 상태에서 통합마케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농협은 매출액 1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전북이 명실상부한 농산물

통합마케팅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군산시 조공법인의 설립은 전북 지역 통합마케팅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의미를 지니며, 이를 계기로 전북이 국내 통합마케팅 선도 지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북의 성공 사례는 전국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은 농산물 통합마케팅 체계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정환 본부장은 "전북 농산물 통합마케팅의 성공적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함차게 시작하게 되어 기쁘다"며 "전북농협은 농업소득 3천만원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퀴즈 맞히고 선물 받고’

농진청, 정월대보름 맞아 잡곡 소비 촉진 온라인 행사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5일부터 12일까지 ‘정월대보름에는 알뜰달상 조성 퀴즈!’ 온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12일(음력 1월 1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과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행사 기간에 퀴즈 정답을 댓글로 남기면 40명을 추첨해 식단이 팬 상품(쿠키), 우리 품종 쌀 세트 등을 증정한다.

정월대보름 온라인 행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www.nrcs.go.kr)과 기관 사회관계망(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월대보름은 한 해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이다. 이날에는 쌀, 팥, 조, 수수, 검정콩 등을 넣은 오탁밥을 먹고, 자기 나이 수대로 부럼을 깨



몰며 즐기거나 부스럼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권도연 원장은 “정월대보름 행사가 우리 풍습을 되돌아보고 농산물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나아가 식량작물의 가치와 소비 확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농협손보 전북총국, 2025년

과수 4종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총국장 김용재)은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 과수4종(사과, 배, 단감, 뽕나무) 판매를 지난 3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사과·배·단감·뽕나무 등 과수4종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지진, 화재뿐 아니라 동상해(추위나 서리로 인한 눈꽃 피해), 일소(햇볕 데임) 피해 등 다양한 재해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농가는 추가적으로 나 무손해 특약을 가입하여 나무가 고사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므로 자기부담비를 유형에 따라 국가에서 보험료의 33~60%를 지원하고, 여기에 지자체에서 35~45%를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시군에 따라 0~35%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과수4종의 방제시설의 보험료 할인율이 25% 증가하였고, 온풍기 할인(사과)의 신설 항목이 추가되어 농가보험료 경감에 개선사항이 반영되었다.

작년에는 호우 기록적인 폭염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과수 농가 피해가 심각했으며, 전북 내에서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뽕나무) 품목으로 전체 82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이는 전북의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3.7배가 농민에게 지급되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총 78개 품목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중기청 ‘도전! K-스타트업 2025’ 통합공고

국내 최대규모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대장정 돌입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부처가 협업하여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5’가 4일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도전! K-스타트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4개 부처 협업으로 시작한 이래, 협업부처 및 예선리더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매년 평균 5,700여 팀(24년 6,238팀)이 참가하는 등 유망 (예비)창업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창업아이템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로 성장하였다.

올해 개최되는 ‘도전! K-스타트업 2025’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부처가 협업하며, 8월까지 부처별 예선리그가 진행되고, 이후 예선리더를 통과한 (예비)창업자들이 경쟁하는 통합본선(225개팀)이 이어져 왕중왕전에 진출할 30개팀을 가리게되며,

12월에는 최종 무대인 왕중왕전을 통해 올해 최고의 창업기업 10개사와 예비창업자 10개팀을 선정해 총 상금 14억원(최대 3억원), 대통령상·국무총리상 등을 시상하는 것으로 약 1년간 여정을 마무리된다.

올해는 콘텐츠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콘텐츠리크(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하여 총 12개 리그로 운영하며, 이에 따라 통합본선 진출팀도 기존 210개에서 225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후속 연계지원도 강화한다.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우선선정 대상이 대상 수상팀에서 최우수상 수상팀까지 확대되어 28년 예비창업패키지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그 외 왕중왕전 진출팀은 서류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안태용 청장은 “위기 상황일수록 과감히 도전하는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소상공인 지원제도 설명회’

중기중앙회, 서울을 시작 2월 중 전국 14개 지역서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5 소상공인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경기침체와 소상공인 폐업 증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약 300명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25년 소상공인 지원정책 △신용보증제도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자금 등을 상세히 설명했고,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고객을 위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다양한 복지서비스 혜택 등을 설명하며 참석한 소상공인들에게 활용 가능한 지원자금과 제도를 자세히 안내했다.

소상공인 지원제도 설명회는 이날 서울(여의도)을 시작으로 2월 한 달

동안 전국 14개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단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의 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하게 됐다”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 이후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재재가입자 177만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금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전망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법률·세무·노무 등 무료 경영 자문 △휴양시설 회원가 제공 △역량강화 교육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무주덕유산리조트 ‘올인원 패키지’ 출시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스키장 이용객들을 위해 장비와 리프트권을 한번에 구매할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를 2월 28일까지 선보인다.

이번에 선보이는 올인원 패키지는 △리프트 6시간권 △장비 렌탈 △의류 렌탈(헬멧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키장에서 필요한 모든 용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 번에 구매할 수 있어 초보자도 부담 없이 스키를 즐길 수 있다.

가격은 성인 기준으로 정가 대비 30% 정도 저렴하다. 올인원 패키지는 오는 28일까지 판매되며, 예약 없이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무주덕유산리조트 관계자는 “스키장 이용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겨울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올인원 패키지를 출시했다. 무주리조트 이용객들이 덕유산의 설경과 함께 즐겁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은 국내 최



장을 자랑하는 6.1km의 실크로드 슬로프와 국내 최고 경사도(평균경사 76%)의 레이더스 슬로프를 포함한 총 34면의 슬로프를 갖춘 국내 최대 규모 스키장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